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60화)

“이긴자가 아니면 역곡(驛谷)에 끌어올 자가 없어!”

10월: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하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 4) 하와 이긴자가 임공께 천사를 전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무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겼나이다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영모님은 둘째 울타리가 되는 해와 상징으로 덕소신앙촌을 지으셨는데, 그 덕소신앙촌이 제2신앙촌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셋째 울타리 상징으로 가장 신앙촌을 지었는데, 이 제3신앙촌이 되는 가장신앙촌을 지을 무렵에 셋째 울타리가 되는 아담 이긴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담 이긴자는 “하나님의 뜻이 소사에서 시작하여 소사에서 마친다.”는 영모님 말씀대로 제1신앙촌이 있는 소사에서 30년간 연단을 받고 출현하게끔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가장 무서운 적이 음란마귀다

제3신앙촌 건설은 경남 양산군 가장읍 죽성리 770번지 일대에 약 240만평의 넓은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신앙촌을 짓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1972년에 영모님의 부인되는 박모 사모님이 돌연 세상을 떠나자, 영모님의 사모님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많은 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거나 더 천하게 여기는 차별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모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해에 저

멀리 소사신앙촌의 밀실에서 해와 이긴자가 은혜를 입혀 아담 이긴자의 후보자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담 이긴자의 후보자였던 전봉구 집사가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천길만길로 떨어지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와 이긴자는 ‘우리의 죄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의 사정이 불리하게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영모님을 따르던 수많은 교인들이 음란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것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마음으로 음란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교인들의 음란죄가 아담 이긴자의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가장 무서운 적이 음란마귀가 된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하고 계셨지만, 밀실에서 아담 이긴자의 후보자 전 집사가 음란마귀한테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책을 다시 생각하게 이르렀고 마침내 교육자계로 음란을 멀리하여 달아나는 것보다 음란을 가까이 둔 상황에서 이기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을 모신 영모님이 먼저 새장가를 드는 일부터 단행하였습니다. 그것도 영모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듬해에 가장신앙촌 경리부에 일하는 최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발표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은 영모님의 재혼에 갑작스러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영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적으로 짓는 죄는 모세율법에 저촉되어 심판받은 것이지만, 자유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눈길로나 마음길로나 범죄하면 심판받아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에 자리잡은 승리재단

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음란을 그토록 강하게 치던 당사자가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전도관 교인들 중에 일부는 실망하고 다시는 신앙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며 신앙촌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미혹을 당하는 게 많이 있어서 안 된다

재혼발표 이후 영모님은 공장장이나 관장 같은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접촉하며 중매를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국적으로 천주교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전도관에서는 남자 교인들보다 여자 교인들이 훨씬 많았는데, 우선적으로 35세 이상 되는 노처녀들만 한해서 가장신앙촌에 긴급히 만든 호화스러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1973년도부터 시작된 결혼 붐은 1976년에 절정에 이르고 1980년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독려하고 강력하게 권면한 것은 하나님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980년도에 이르자 영모님께서 금혼령을 내리고 이미 결혼한 부부들조차 갈라서라고 엄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중엽, 영모님께서 친히 일곱째 천사를 불러, “너 혼자 있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을 안 하면 미혹을 당하는 게 많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앞으로 둘째 아담 이긴자로서 구세주가 되어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내다보시고 일곱째 천사의 중매를 서신 것이었습니다.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침이 셋이다. 다섯이다. 열이다’라는 등 이렇게 모략과 모함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무리가 생길 것을 아시고 하늘의 사립인 일곱째 천사에게 방패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가 구세주로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때에 흠과 티가 없는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기도를 삼십일씩 열네 번을 하였다

한편 영모님은 제2신앙촌 덕소에서 성당일로에 있던 슬레이트, 알루미늄 새시 등의 공장 문을 닫고 제3신앙촌으로 이동하였는데, 특히 시온합성 섬유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을 많이 한 공로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동탑훈장을 영모님의 가슴에 달아주기도 하였습니다. 1977년경 가장신앙촌내 섬유공장에 일본으로부터 섬유화학제품으로 원사를 뽑는 폴리레스 기계가 새로 들어옴으로써, 시온합성 섬유공장은 원사를 뽑아 나열을 하고

그리고 원단을 짜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최첨단의 자동화된 공장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뿔뿔히 들어간 신앙인들만으로는 공장을 가동시킬 전문직 종업원의 수가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외부인들을 뽑아 들어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버스로 출퇴근시켰으나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자 신앙촌내 기숙사를 마련하여 숙사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모님은 외부종업원을 위해 공장내부에 5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시온전도관’이라는 제단을 별도로 마련하였는데, 이 제단의 책임관장으로 영모님 동서(同鄕)가 되는 김삼욱 관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인 종업원들은 거의 다 시온전도관 예배에 참석을 하였으며, 그들 중에 많은 수가 기존 신앙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영모님은 이러한 시온전도관 사람들에게 대해 도드라진 관심과 사랑을 표하셨는데, 일례로 운동회가 열리면 꼭 시온전도관 사람들을 챙기시며 상도 많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영모님이 김삼욱 관장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즉시 시온전도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내 집무실로 모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각 공장장에 전화하여 영모님의 소집명령을 전하자 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오후 4시경에 영모님 집무실로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문을 열고 영모님이 들어오시더니 찬송 한 장을 부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곧바로 영모님께서 “금식기도를 삼십일씩 열네 번을 하였다.”라고 짹짹 말씀하시고 그림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온전도관 사람들 모두 ‘어떻게 30일씩 14번씩이나 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영모님은 대단한 분이이요!”라고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영모님께서 가장신앙촌에서 새벽예배를 인도하실 때, 여제 집무실에서 공개한 ‘금식기도를 삼십일씩 열네 번

을 하였다’는 말씀을 전 교인들에게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관 교인들은 지금까지 영모님 당신의 끌어오신 신앙 간증담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 금식기도에 관한 간증은 정말 생소하고 대단한 영모님으로 각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을 한 주인공이 영모님 자신이 아니라 둘째 아담 이긴자가 되는 일곱째 천사였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영모님의 입을 통해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1978년 8월 18일에 일곱째 천사를 소사 신앙촌의 밀실로 불러들이는데 성공하셨던고로 이에 마귀의 사망 권세를 꺾고 마침내 밀실에서 이긴자가 곧 나올 것을 내다보시고 이 이긴자를 미리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 영모님은 1980년 8월 23일에 재차 말씀하시기를, “이런 많은 마귀역사 가지고도 그냥 말해서 그 몸이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면서도 증거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터져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나 봐 알잖나 예수 자신이 모르잖아서 자신이 죄 지은 줄 모르잖아서 원죄가 어떻게 오는 건지 자기 속에 온 건지 모르잖았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라면 구원이 어디가도 여기 없어. 내 오전에 말했지만 기성교인들이 많이 온고로 아, 하나님 믿으면 간다고 했지만 그게 억만만 년 그냥 밭이, 손이 밭이 되도록 빌어봐. 이긴자 같이 끌어올 자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끌어올 자가 없어. 이긴자가 아니면 역곡(驛谷)에 끌어올 자가 없어. 그 이긴자 같이 그렇게 금식기도를 열네 번, 삼십일씩 열네 번 열이를 할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 한 구절 캐지 않으면 알만 한 한 게 아니야. 보통 열흘씩 금식기도 한 건 딱딱했던 건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빗긴 거야. 그리고 오늘날 이긴자가 된 거야.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 하나 밖에 없어. 성경 상에 없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37>

구경무아분(究竟無我分) 第十七

(지난호에 이어서)
그리고 석존이 말씀하는 연등부처님이 계셔서 석존에게 수기를 주셨다면 결국 연등부처님도 부처가 아니라는 뜻이며, 이러한 이유는 연등부처님이 부처였다면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體同)이라고 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같은 한 부처님으로 내세가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내세는 윤회를 말하는 것으로 불도를 이룬 부처가 어찌 불도를 이루지 못한 중생들이나 돈다고 하는 육도의 윤회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등부처님이 석존에게 내세에 네가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면 이는 불교의 교리에도 어긋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말씀에도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법과 뜻이 한결같이 여법(如法)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가르치고 있으니 이 말씀의 뜻은 연등부처님도 없고 석존께서도 말이 틀리므로 옳게 잘 알아들어서 뜻이 맞지 아니하므로 진실한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나라는 존재는 없다_3)

是故燃燈佛與我授記作是言
汝於來世當得作佛號燃燈牟尼
여내세당득작불호승가모니
何以故 如來者即 諸法如義
하이고 여래자즉 제법여의
이러므로 연등부처님이 “너는 다가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는데 승가모니라고 부른다”고 말하시며 수기를 주었나이다. 왜냐하면 여래(법신불)라 함은 모든 법이 뜻과 같아야 하느니라.

[해석] 여기 이 문장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연등부처님께서 석존에게 수기를 주었다고 하지만, 부처라고 한다면 법과 법이 함께 일치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이것이 물이라고 하면 물이지 아니라는 것과 한 이치라는 뜻입니다.

※如來者即 諸法如義 ;
[강해] 이것은 여래가 자신을 여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최종적 선포이다.

“Bhūta - tathata”를 羅什은 “如”라는 단 한마디로 번역하였다.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일 뿐(如)이라던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구원”(Salvation)이라는 개념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如”는 문자 그대로 “같다”이다. “如如”는 “같고 같다”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불교에서 이 如字만큼 혼란스러운 글자가 없다. 사실 인도사람들이나 일본의 불교학자들은 “如”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것을 변화의 배후에 상징되는 불변의 진리라는 식으로 쓸 때가 많다. 다시 말해서 生滅하는 현상의 근원을 이루는 不變의, 항상 같고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상의 배후에 항상 같고 같은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실체의 오류”일 수밖에 없다. 일본학자들은 이러한 오류에 대해 일반적으로 섬세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如”는 그냥 “그러한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현상과 본체라는 이원적 인식의 구조가 근원적으로

틀리워져 있지 않은 상태의, 말하자면 아무 틀이 없는 가운데서의 그냥 그러한 모습이다. 이것은 매우 철저한 현상일원론적 해석이다. 나는 『금경경』은 이러한 철저한 현상일원론적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여기 “현상”이라는 말 자체의 상대적 어폐가 또 개제된다). 바로 이 점이 『금경경』이 후대에 禪의 所依경전으로 인식된 측면일 것이다. -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 pp. 308-309 인용

若有人言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約言因緣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實無有法佛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수보리실무유법불득아누다라삼막삼보리
須菩提 수보리
如來所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여래소득 아누다라삼막삼보리
於是中無實無虛
어시중무실무허
是故如來說 一切法皆是佛法
시고여래설 일체법개시불법
민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여래(석존)가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한다면, 수보리야, 여래(석존)가 아누다



부탄 왕국의 수도 팀푸(Thimphu) 근처에 있는 유색 암벽화 (연화생(蓮花生, lián huá shēng)) 파드마삼비바(Padmasambhava : 인도의 고승) 또는 구루 린포체(Guru Rinpoche : 가장 소중한 스승) http://jrt.org/religioustheory/2019/10/23/review-genealogies-of-mahayana-buddhism-ananda-abeysekara/

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저 가운데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래(석존)가 모든 법이 다 불법(佛法)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해석] 그렇습니다. 석존은 스스로도 이 금강경과 여러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아님을 밝혔지만 그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이나 3000여 년 전이나 석존의 진실한 뜻을 알아들

지 못하므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석존의 경전을 해석하고 또한 경전을 왜곡하고 조작하면서 석존의 진실한 뜻을 숨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러므로 석존께서는 지금 윗글과 같은 일체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